

정책자료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 變化展望과 對應戰略

1992.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 變化展望及 對應戰略

1992.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公正과 均衡을 지향하는 國際經濟의 基本秩序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協商不振으로 인하여 한동안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美國과 EC間에 油脂種子(oil seeds)관련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의 교착요인중의 하나가 제거되었다. 즉, 農産物 분야에서 輸出補助金 및 國內보조금 삭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美國側의 요구를 EC側이 약간의 修正을 加한후에 수용한 것이다.

물론 個別國家의 입장에서 部分的 반대가 있겠으나 6년동안 기울여 온 多者間 交易秩序의 형성노력이 마지막 時限을 넘겨, 수포로 돌아가기는 이미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1993년 世界經濟의 분위기와 協調의 수준은 과거 어느 해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國際的 協議의 진전상황속에서 1993年度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1992년도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경기침체와 國際原油價 안정추세등으로 인플레이가 크게 진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주요선진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金利引下와 政府支出증대를 실시할 것이 예상되며, 둘째는 지난 3/4분기에 3.4%라는 예상밖의 성장을 기록한 미국경제가 堅實한 成長勢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경제성장의 始動이 이미 걸린 개도국들(中國, 東南亞諸國, 멕시코 및 中南美諸國)의 활발한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 등이 내년도 세계경제의 回復局面을 예상케 해 준다.

그러나 1993年度에도 부분적으로 우리경제의 對外關係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變數가 될 과제들이 많다. 韓·美경제협력관계, 韓·日間경제문제, EC統合에 관련된 韓國의 대응, 亞·太經協에서의 우리의 位相, 東北亞경제질서 형성의 모색, 對北方정책, 對OECD政策 그리고 새로이 등장한 國際環境問題 등이 그것이다.

本 報告書는 이러한 모든 과제들을 풀어나감에 있어 우선 國際經濟 전반의 與件變化를 豫見하고 이러한 변화때문에 우리의 世界經濟를 보는 視角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政策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묶어 본 것이다. 本院은 이러한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 徐壯源, 金南斗, 金尙謙, 金時中, 金益洙, 金泰俊, 閔充基, 朴泰鎬, 柳在元, 李昌在, 任千錫, 韓宅煥박사 등이 심층分析하고 있거니와 그중 核心되는 부분만을 간추려 편집한 것이다. 1993 年度 世界경제를 眺望하는데 있어 政府당국자들이나 民間전문가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報告書에 제시된 見解들은 이에 참여한 위의 執筆者들 各自의 것으로써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2年 12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目 次〉

I. 國際經濟環境의 變化	7
1. 美·EC間 經濟關係의 새로운 局面展開	7
2. UR 協商의 妥結可能性과 貿易環境의 變化	7
3. 地域主義의 深化	8
4. 舊社會主義圈 經濟體制改革의 持續	9
II. 1993年 世界經濟展望	11
1. 내년중 完만한 成長回復勢 期待	11
2. 國際貿易 伸張勢 回復	12
3. 美國 3%대의 實質經濟成長 豫想	13
4. 日本經濟는 1993年 下半期이후 回復 可能	14
5. 西유럽, 미미한 成長回復勢와 高失業 持續	15
6. 東아시아 地域 등 開途國의 활발한 成長勢 持續	16
III. 對外與件의 變化가 주는 示唆點	19
1. 市場開放의 加速化 및 競爭深化	19
2. UR協商 妥結에 따른 對外進出 與件의 改善	20
3. 主要 交易對象國과의 經濟協力強化 必要性 增大	20
4. 開放的 地域經濟協力體制 構築의 必要性 增大	21
5. 對北方國家들과의 效率的 經濟協力強化 方案 摸索	21
6. 國內政策, 制度 및 慣行에 대한 積極적인 先進化 作業의 推進	22
7. 通商外交의 效率性 增大方案 摸索	22
8. 環境, 技術 등 新分野關聯 多者間協定 締結에 대한 對備策 講究	23
9. 回復局面이 豫상되는 世界經濟의 積極 活用	23

IV. 主要 對外經濟政策課題와 對應戰略	25
1. UR協商	26
2. 韓·美 經濟協力	29
3. NAFTA에의 對應	34
4. 韓·日 經濟協力	37
5. EC 經濟統合에의 對應	42
6. 亞·太 經濟協力	46
7. 北方經濟協力	50
8. 東北亞 經濟協力	53
9. OECD와의 協力	57
10. 國際環境問題	60
V. 要 約	65

I. 國際經濟環境의 變化

1. 美·EC間 經濟關係의 새로운 局面展開

—美國에서 클린턴이 새 大統領에 당선된 이후 주요선진국간의 經濟關係는 새로운 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특히 美·EC間에는 農産物을 중심으로 한 主要 爭點부문에 있어 對決로 인한 긴장의 지속보다는 쌍방이 약간씩 물러서는 타결위주의 새로운 局面이 展開될 것으로 보임.

○EC內部에는 프랑스와 여타국간의 意見차이로 인한 갈등이 때때로 노출될 것이나 多數의 壓力에 밀려 프랑스의 주장에도 한계가 드러날 것임.

○日本도 국제적인 압력, 國內의 정치불안 및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自國內市場보호를 위한 강력한 政策은 펴지 못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지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과 對美通商關係의 柔和的 분위기 조성 쪽으로 立場을 再정리해 나갈 것임.

○따라서 1993년중에는 3極(美·EC·日)간의 세력확장이나 대결구도보다는 UR 타결을 중심으로 한 新國際經濟秩序의 모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2. UR 協商의 타결가능성과 貿易環境의 變化

—우루과이라운드(UR)는 국제무역질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GATT의 機能을 강화하여 工產品 貿易은 물론 農産物과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를 달성하려는 多者間 國際貿易協商임. UR 협상이 당초 타결시한(1990년 12월)을 훨씬 넘기고 妥結展望이 계속 不透明한 상황에 있었으나 1992년 11월 美國과

EC가 油脂種子(oil seeds) 問題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보임으로써 UR 타결의 전망은 한층 밝아짐.

- 이러한 상황에서 各國은 기존의 國內産業 保護조치등 각종 貿易障壁을 재 점검하여 국제수준을 초과하는 것이 없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先進國(특히 美國)으로부터의 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3. 地域主義의 深化

—UR을 중심으로 한 多者間 自由貿易秩序 構築의 노력이 계속되는 중에도 世界經濟 및 貿易秩序는 이미 진행중인 地域主義 또는 地域內 協力強化의 作業을 계속할 可能性도 높아지고 있음.

- EC는 1992년까지 單一市場 形成을 마무리짓고 궁극적으로 經濟·通貨同盟과 政治統合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여타 西유럽 國家間의 自由貿易聯合體인 EFTA와의 統合方案도 推進하고 있음.
- 美國과 加나다는 墨西哥까지를 포함하여 北美 3國을 하나의 自由貿易地帶로 묶으려는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을 체결하고 이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具體的인 地域經濟協力體가 形成되지 않은 亞·太地域에서도 1989년 亞太經濟協力閣僚會議(APEC)가 創設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地域的 經濟協力을 위한 努力이 強化될 것으로 보임.
- 東南亞지역에서 아세안(ASEAN) 6개국은 나뉘대로 자유무역지대(AFTA)을 형성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關稅인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음.

4. 舊社會主義圈 經濟體制改革의 持續

-1993年에도 舊社會主義圈의 經濟改革은 지속되어 이들 국가의 世界經濟로의 編入은 더욱 進전될 것이나 國家別 經濟狀況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됨.

○中國은 독특한 改革· 開放政策을 통하여 高度成長을 지속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1993년중 對美 關係改善 등을 통한 經濟開放의 加速化가 이루어질 것임.

○舊蘇聯 및 東歐는 市場經濟體制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경제침체로 對外債務償還이 어려울 것이고 서방으로 부터 막대한 財政的 支援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世界經濟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II. 1993년 世界經濟展望

1. 내년중 完만한 成長回復勢 期待

-1991년중 심각한 景氣沈滯局面을 경험하였던 先進國 經濟는 1992년 들어 약간의 回復 움직임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건설한 成長勢를 보이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世界經濟는 1993년중 미약하나마 成長回復勢가 점차 擴散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經濟回復 전망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그동안 각국의 景氣沈滯와 原油 등 國際原資材 價格의 安定을 반영한 國內物價安定 및 그에 따른 金利의 下落으로 향후 投資와 消費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日本과 美國 등의 消費者物價上昇率은 1960년대와 비슷한 2~3% 수준으로 안정돼 있으며, 兩國의 優良貸出金利도 5~6%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둘째, 世界經濟 움직임을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는 國際原油價格은 1992년 중 배럴당 20달러 내외의 수준에서 安定된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러한 趨勢는 199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國際油價가 安定될 것으로 보는 理由는, 戰後 復舊를 위한 財政支出資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웨이트 이라크 등이 새로운 油田의 開發 및 기존 產油施設 擴充 등을 통해 增產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國別 產油量 쿼터에 대한 OPEC의 統制力이 약화되면서 이란 이라크 등이 產油量을 增加시키고 있기 때문임. 또한 體制改革 過程에서 필요한 硬貨收入을 위하여 러시아가 原油輸出을 줄이지 않고 있음.
- 셋째, 美國, 日本 등 주요 선진국 정부들도 景氣浮揚을 위한 대폭적인 公

共支出 擴大와 政策金利 引下 등을 통한 經濟活性化 措置를 1992년에 취하였으며, 1993년에도 이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IMF 등 主要 經濟豫測機關들의 豫測値를 종합하면, 先進國의 경우 1993년중 2.5~3%의 實質經濟成長이 기대되고 있으며, 東南아시아, 中國, 中東 등의 활발한 成長으로 開途國 全體로는 6% 이상의 經濟成長이 예상되고 있음.

2. 國際貿易 伸張勢 回復

-1991년 들어 世界貿易은 先進國 經濟의 沈滯 등으로 매우 不振하여 交易量 增加率이 1980년대중 年평균 5~6%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 수준으로 크게 下落하였으며, 1992년에도 4% 수준에 머물렀음. 1993년중 國際貿易은 전반적인 世界經濟回復勢에 따라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IMF 등 주요 經濟豫測機關들은 貿易伸張率이 5~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國際貿易伸張은 단기적으로 위와 같이 世界經濟의 成長勢에 크게 영향받겠지만, 中長期的으로는 主要國의 通商政策方向,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추진 및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의 진전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貿易自由化措置 등 國際貿易環境의 變化에도 影響을 받을 것임.

-특히 1993년 출범할 美 民主黨 行政府가 1992년 대통령 선거유세중에 밝힌 바와 같이, 향후 交易相對國의 公정한 貿易慣行과 市場接近 改善을 요구하면서 강력하고도 공격적인 通商政策을 펴나갈 경우, 미국에 대하여 막대한 貿易黑字를 기록하고 있는 日本, 中國 및 臺灣 등 아시아 국가들은 通商壓力의 主要 對象國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1988년 綜合貿易法에 의해 도입된 후 2년간 적용되다가 소멸된 수퍼 301條를 부활하려는 움직임도 美國 新行政府에서 일고 있어, 美國의 通商政策 方向은 UR協商의 妥結與否와 함께 1993년 이후 世界貿易秩序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사로 등장할 것임.

3. 美國 3%대의 實質經濟成長 豫想

-1991년중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成長率을 보였던 美國經濟는 1992년 들어서도 미미한 回復勢를 보이는 가운데 産業生産의 不振, 高失業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1960년대와 비슷한 3%대의 낮은 消費者物價上昇率을 바탕으로 景氣振作을 위한 美 聯準(FRB)의 金利引下와 그동안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 및 生産性 向上을 위한 構造調整 努力 등에 따라 중기적인 成長基盤이 構築되는 등 美國經濟의 回復을 위한 與件은 크게 好轉되고 있음.

○ 이미 1992년 3/4분기중 經濟成長率이 3.4%(前期比 年率)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최근 들어 主要 短期經濟指標도 好調를 보이고 있음.

-1993년중 美國經濟는 부분적으로 EC, 日本과 東아시아 등 主要 交易相對國의 景氣回復의 程度, UR協商의 妥結可能性과 NAFTA의 進展狀況 등 國際貿易 環境變化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1992년 하반기 이후의 回復움직임과 클린톤 新行政府의 대규모 公共投資計劃 등을 감안할 때, '景氣回復'의 基調的 趨勢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1992년과 1993년중 美國의 經濟成長率은 각각 2.0%, 3.0%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최근 美國 議會豫算局(CBO)이 美國의 勞動力, 生産性 및 貯蓄의 長期的인 趨勢 등을 기초로 하여 전망한 바에 의하면, 1994~

97년 기간중에도 연평균 2.5% 内外에 달하는 비교적 堅實한 成長勢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 日本經濟는 1993年 下半期이후 回復 可能

-1988년 이후 연평균 5%이상의 實質經濟成長率을 기록하면서 長期好況局面을 계속하였던 日本經濟는 1991년 하반기 이후 景氣下降局面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음. 이는 景氣過熱을 우려한 日本政府가 1989년말 金利引上과 財政支出의 삭감 등을 통한 緊縮政策의 실시로 株價 및 地價가 急落하면서 그동안 景氣擴大를 주도하였던 企業의 設備投資, 住宅投資를 크게 萎縮시켰기 때문임.

○1992년들어 景氣浮揚을 위한 日本政府의 努力과 日本銀行의 金利引下政策에도 불구하고, 個人消費와 기업의 設備投資 不振이 계속되면서 1992년 3/4분기중 GNP성장율은 前期比 -0.4%로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따라서 日本經濟의 1992년 GNP성장율은 1992년 8월의 綜合經濟對策의 效果를 고려해도 2% 이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1993年에도 下半期 이후에나 綜合經濟對策의 景氣浮揚效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1993년중 일본의 經濟成長率은 2.5~3.0% 수준으로 예상됨.

-한편 日本의 國內需要 沈滯로 輸入需要가 감소하는 반면 輸出은 계속 好調를 보여, 貿易收支黑字와 經常收支黑字가 1992년중 사상 처음으로 각각 1000억~1200억달러에 달하였으며, 1993년중에도 1000억달러 이상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5. 西유럽, 미미한 成長回復勢와 高失業 持續

-1980년대 후반중 연평균 3%에 가까운 비교적 견실한 經濟成長을 기록하였던 西유럽 經濟는 1991년 들어서 美國經濟의 沈滯와 유럽 각국의 高金利 政策 및 美 달러貨에 대한 西유럽 通貨의 平價切上 등으로 침체되기 시작하여, 1991년 經濟成長率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1992년 들어서도 그동안 西유럽 經濟成長을 制約하였던 요인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獨逸의 高金利政策 등에 따른 유럽外換市場의 不安까지 겹쳐 西유럽 각국의 經濟政策運用을 制約함으로써 西유럽 전체의 經濟成長率은 1.0~1.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특히 英國은 1991년에 이어 1992년에도 마이너스 成長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1993년중 西유럽 經濟는 EC 域內單一市場의 실현에 따른 심리적 효과, 美國 經濟의 回復가능성 그리고 獨逸을 비롯한 西유럽 高金利의 緩和可能性 등 밝은 면도 있으나, 西유럽 經濟의 成長回復勢는 대단히 미약할 것으로 보이며 뚜렷한 回復勢는 1993년 하반기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西유럽 經濟의 回復이 지연됨에 따라 雇傭事情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임. 전반적인 生産活動의 不振과 企業의 自動化 趨勢 등에 따라 1991년 9.2%였던 EC 전체의 失業率은 1992년중 이미 10%에 근접하였으며, 1993년중 1~2% 정도의 미약한 經濟成長率을 감안할 때, EC의 失業率은 1993년에도 10% 수준을 上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6. 東아시아 地域 등 開途國의 활발한 成長勢 持續

-1980년대 후반 이후 高成長을 지속하고 있는 아세안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東아시아 지역과 戰後 復舊가 한창인 이라크, 쿠웨이트 등 中東地域 및 멕시코 등 中南美 國家들을 중심으로 높은 成長勢가 지속되어 開途國 전체로는 약 6%의 經濟成長率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中國의 경우 1992년에 이어 1993년에도 10% 이상의 高度成長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인접한 아시아 新興工業國들과 함께 東아시아 地域은 世界 經濟成長의 中心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다만 舊蘇聯 등 舊社會主義圈 경제는 1992년과 같은 最惡의 經濟沈滯(러시아의 경우 20%의 生産減退)에서는 벗어나겠지만 1993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마이너스 成長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主要豫測機關의 世界經濟展望

	'90	'91	IMF 展望 ⁴⁾		WEFA 展望	
			'92	'93	'92	'93
經濟成長率(%)	2.3	0.1	0.8	2.3	0.9	3.1
先進國	2.4	0.6	1.4	2.0	1.7	2.8
美 國	0.8	-1.2	2.0	3.0	1.8	2.9
日 本	5.2	4.4	1.6	2.4	2.2	3.4
獨 逸	4.5	0.9	1.6	0.6	1.5	2.3
開途國	3.6	3.2	6.1	5.7	4.4	5.4
舊社會主義國 ^{1) 2)}	-1.5	-9.7	-17.2	-5.4	-6.3	1.6
失業率(%)						
先進國	6.2	7.0	7.7	7.6	9.2	9.2
美 國	5.5	6.8	7.5	7.1	7.5	7.2
日 本	2.1	2.1	2.1	2.2	2.1	2.3
獨 逸	6.2	6.7	7.8	7.7	9.0	8.1
消費者物價上昇率(%)						
先進國	4.9	4.4	3.3	3.2	3.4	3.4
美 國	5.4	4.3	3.1	3.1	3.0	3.4
日 本	3.1	3.3	2.2	2.4	2.1	1.9
獨 逸	2.6	4.5	4.9	4.2	4.5	3.7
開途國	80.2	42.5	42.4	27.7	-	-
舊社會主義國 ¹⁾	21.2	95.4	1,192.4	109.6	-	-
經常收支(10억\$)						
美 國	-90.4	-3.7	-34.7	-54.5	-40.8	-48.4
日 本	35.8	72.9	110.4	100.9	117.3	107.6
獨 逸	47.1	-19.8	-21.8	-8.6	-19.8	-10.1
開途國	-14.2	-78.2	-51.8	-52.9	-62.1	-54.9
舊社會主義國 ¹⁾	-22.4	-9.7	-18.6	-24.6	-1.8	-4.0
世界貿易伸張率(%)	3.9	2.3	4.5	6.7	4.1	5.8
國際原油價 ³⁾ (\$/bbl)	22.1	18.3	18.3	18.2	17.9	18.9
LIBOR(6個月物, 年利 %)	8.4	6.1	3.9	4.2	3.8	4.2

註 : 1) 舊社會主義國은 舊蘇聯,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 등 東유럽 舊社會主義國 및 蒙古 등을 포함함.

WEFA 展望의 경우, 中國도 포함되는 計劃經濟國 基準임.

2) 1992년과 1993년중 國別成長率 전망을 보면, 舊蘇聯(IMF전망)은 -18.6%와 -7.6%, 中國(WEFA전망)은 11.5%와 10.2%임.

3) 북해産 Brent油, 中東産 Dubai油 및 알래스카産 原油 등의 平均現物價格 기준임

4)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92년 12월 23일에 수정발표한 것임.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99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992.



Ⅲ. 對外與件의 變化가 주는 示唆點

1. 市場開放의 加速化 및 競爭深化

-1993년에는 조만간 타결이 예상되는 UR協商, 美國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EC 市場統合計劃의 완료 등으로 인하여 國內市場에 대한 開放壓力이 가중되리라 예상되고 內外國企業間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리라 전망됨.

○ 1993년에 UR協商이 타결될 경우 이것은 곧 關稅引下 등과 같은 市場接近措置 및 서비스 讓許協商 등에 의하여 國內 재화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 확대를 가속화시킬 것임. 더우기 農產物分野에 대한 UR協商의 타결은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 품목으로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農業 및 全産業의 構造 개편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임.

○ 또한 클린턴 新行政府의 등장으로 인하여 美國의 通商外交가 多者間 交易秩序의 확대와 더불어 公正貿易去來秩序의 확립이라는 명분하에 自國利益의 확보 측면을 강조하리라 예상됨에 따라 1993년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美國側으로부터의 市場開放壓力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金融市場 및 産業, 資本移動 등과 관련된 自由化 확대요구가 가일층 심화되리라 전망됨.

○ 이와 더불어 1992년 EC市場統合計劃의 完了에 따라 1993년도에는 EC로부터의 통상압력이 또한 가중되리라 예상되는데 특히 금융서비스에 대한 開放擴大 및 內國民待遇 부여 그리고 酒稅인하에 대한 요구가 增大되리라 예상됨.

-이러한 市場開放壓力의 增大 및 開放擴大는 곧 內外國企業間의 競爭 심화를 유발하리라 예상되므로 이것에 대비한 國內기업 및 政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강구가 요구됨.

2. UR協商 妥結에 따른 對外進出 與件의 改善

-1993년도에 UR協商이 妥結될 경우 이것은 關稅率 引下 및 市場開放폭의 증대에 의한 국내시장의 개방 확대라는 측면 이외에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市場開放 擴大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대외진출이 보다 效率的이고 용이해지리라 예상됨.

-한편 UR協商의 타결에 따르는 對外進出與件의 개선과 더불어 생산의 국제화 현상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주의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내의 산업구조 조정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 되어야 할 것임.

○ 해외에서의 資本調達 및 용도, 해외로의 자금 이전 등과 관련 政府의 海外投資에 대한 규제의 완화 및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主要 交易對象國과의 經濟協力強化 必要性 增大

-EC 統合이나 NAFTA의 결성 등에 따른 世界經濟의 지역주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美國, EC 그리고 日本 등과의 貿易 및 投資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쌍무적 협력체제 강화의 필요성이 1993년에 더욱 증대되리라 예상됨.

○ 이를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韓·美 또는 韓·EC間의 經濟政策協議體制의 구축 및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신뢰성 증대 그리고 主要 先進國

間的 經濟政策協議機構인 OECD와의 적극적인 협력확대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한편 우리나라의 輸出市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增大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主要 投資對象國으로 부상되고 있는 開途國 특히 제2의 NIEs로서 향후 지속적인 高度經濟成長의 가능성이 큰 아세안국가들과의 通商協力強化 方案이 1993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開放的 地域經濟協力體制 構築의 必要性 增大

—1993년도에 더욱 具體化 되리라 예상되는 地域主義 경향이 역외국가에 대한 差別化로 발전하는 것에 대응하고 多者間貿易秩序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機構의 성격 및 진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APEC과 같은 機構가 開放的 地域經濟協力體制로 발전할 수 있도록 同機構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어 짐.

○ APEC와 더불어 또 다른 형태의 開放的 地域經濟協力體制로서의 東北亞 國家間的 協力體制의 구축 가능성 및 具體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5. 對北方國家들과의 效率的 經濟協力強化 方案 摸索

—우리나라의 새로운 經濟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는 北方國家들의 경제개혁은 199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경제사정도 전반적으로 개선되

리라 전망됨. 특히 중국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트남의 경우는 改革, 開放政策이 가속화되어 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1993년에는 그동안의 對北方政策을 재검토하여 中國이나 베트남과의 급속한 交易 및 投資 증대 그리고 여타 舊社會主義圈 國家들과의 經濟協力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改善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6. 國內政策, 制度 및 慣行에 대한 적극적인 先進化 作業의 推進

-UR協商의 타결에 따른 각종 GATT規範 및 분쟁해결 절차의 강화는 國內 貿易政策 및 制度와 관행을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改正, 補完하는 作業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1993년에는 이러한 제도의 先進化 作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또한 開放擴大에 따른 외국기업의 국내시장에의 참여 擴大에 대비하고 實質的인 競爭의 유도를 통한 국내기업의 競爭力提高를 위해서는 政府의 각종 규제완화의 완화 및 改善,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그리고 제반 제도의 보다 철저한 公開的, 客觀的 운영 등이 1993년에 본격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임.

7. 通商外交의 效率性 增大方案 摸索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에 따라 經濟 및 通商問題가 세계 강대국의 주 관심사로 부상되고 多者間 貿易規範이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정착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主要 交易對象國과의 通商外交를 보다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한 國內通商관련 부처간의 政策協調 및 一관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補完, 通商外交擔當機構의 개편 작업 등이 빠른 시일내에 신중히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임.

8. 環境, 技術 등 新分野關聯 多者間協定 締結에 대한 對備策 講究

—環境, 技術, 海洋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多者間 규범의 제정작업은 1993년에 한층 加速化되리라 展望되는데 이러한 분야에서의 協定內容은 우리나라의 貿易 및 投資 그리고 産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豫想되므로 新분야관련 多者間協定 체결에 대비한 보다 體系的이고 效率的인 준비가 요구됨.

9. 回復局面이 예상되는 世界經濟의 적극 活用

—1993년도 世界經濟는 전반적인 物價安定 및 金利下落으로 인한 投資와 消費의 증대, 原油價의 안정 그리고 美國, 日本, EC 등과 같은 主要 先進國의 公공지출 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점차 回復局面으로 접어들 것으로 豫想됨.

—따라서 1993년에는 世界經濟回復을 우리경제의 貿易收支改善 및 構造調整作業을 보다 加速化시키고 國內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政策運營方案의 모색이 요구됨.



IV. 主要 對外經濟政策課題와 對應戰略

《對外經濟政策의 基本方向》

〈多者間體制 強化에 적극 參與〉

—多者間 體制의 強化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상품 및 企業의 해외진출기회의 확대, 國內산업의 구조조정 및 國內貿易관련 政策, 制度 및 慣行의 先進化를 추진

〈雙務間 經濟關係 定立〉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美·EC·日本과의 주요 경제현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雙務間 經濟關係를 強化하고 이들 선진국으로부터의 核心技術 導入 및 技術協力方案을 강구

〈地域經濟協力에 效率的 參與〉

—범세계적 地域主義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市場開拓 및 資源確保를 위해서 亞·太地域에서의 經濟協力과 對北方經濟協력을 새로운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추진

〈새로운 國際經濟課題에 능동적으로 對備〉

—環境, 技術, 海洋 등과 같이 새로운 분야에서의 多者間 規範 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

1. UR協商

(1) 現況과 展望

- 10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UR協商은 4년여 동안의 협상을 마치고 1990년 12월 초 브뤼셀 世界通商長官會議에서 그 막을 내릴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로 미국과 EC간의 農産物協商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결이 연장됨.
- UR協商은 1991年으로 넘어와서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으며 둔켈 GATT 사무총장은 1991년 12월 20일에 자신의 책임하에 最終協商案을 작성·배포하기에 이르렀음.
- 1992년에 들어와서도 農産物協商에서 國內補助金 지급허용분야와 특히 輸出補助金 삭감에 대한 美國과 EC의 立場差異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農産物이 외에도 關稅를 비롯한 市場接近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協商 등에 실질적인 進展이 이루어지지 않아 UR協商의 최종타결 전망은 지속적으로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
- 그러나 1992년 11월 20일 美國과 EC는 貿易戰爭으로까지의 확산이 우려되었던 유지종자(oil seeds)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으며 이는 UR 農産物協商에서의 미국과 EC간의 이견을 해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美國과 EC는 이를 계기로 UR協商에서 農産物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시장개방 등 주요분야에서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進展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UR協商을 전반적으로 재개시켰음.

둔켈 GATT 사무총장은 12월 18일에 貿易協商委員會(TNC)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협상일정을 밝힘과 동시에 협상참가국들의 최대한 협조를 당부하였음.

- 12월말까지 모든 협상참가국들은 GATT측이 작성한 바 있는 最終協商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늦어도 1993년 1월중순까지는 각국간의 입장절충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의 합의를 도출
- 1993년 1~2월 기간에는 지금까지 늦추어왔던 品目別 關稅引下, 品目別 農産物 開放, 서비스분야의 自由化를 위한 협상진행
- 미국의 현 迅速處理權限節次의 시효가 만료되는 1993년 3월 1일 이전에 각료들이 참석하는 TNC會議를 개최하여 UR의 최종타결을 매듭짓.

이와 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적지않은 우려의 소리가 있음.

- 즉 農産物分野에서 EC내 프랑스의 특수한 立場과 예외없는 關稅化에 대한 문제, 서비스협상에서의 最惠國待遇(MFN) 逸脫問題, 纖維 및 知的財産權分野에서의 개도국입장 등 아직도 많은 爭點들이 남아 있어 12월말안에 이들 이슈들에 대한 입장절충이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 힘들.

그러나 UR협상의 성패가 世界交易環境과 나아가서 世界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UR協商은 1993년 2월말까지 妥結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시점에서 지배적인 견해임.

UR協商이 妥結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UR협상 출범당시의 목표수준을 얼마만큼 달성할 것인지는 추후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제출되어 있는 最終協商案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도 예측하기 힘들.

- 특히 農産物分野에서의 예외없는 關稅化原則의 수용불가와 서비스협상에

서의 MFN 逸脫 등의 문제는 12월말과 1993년 1월에 있을 최종협상을 지켜 보아야 할 것임.

(2) 우리의 對應

— 海外市場 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간 交易秩序體制의 강화야말로 雙務的 協商壓力의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분야별로 서면제안, 공식·비공식 회의참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동대처 등 적극적으로 協商에 참여해왔음.

— UR協商이 실패할 경우 協商力과 經濟力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들을 美國, EC, 日本 等 선진국들과 雙務協商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 對外的으로 UR協商의 成功的 妥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對內的으로는 우리경제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는 것이라 하겠음.

○ UR협상의 타결노력은 우리 協商能力을 고려할 때 限界가 있다고 하겠으나 최소한 農産物協商에 있어서 關稅化例外措置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UR協商이 妥結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發效時限이 빨라야 1994년 1월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對應策 마련을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음.

○ 즉 1993년 1년동안에는 UR 결과의 이행계획과 앞으로의 대응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UR協商 妥結로 인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市場開放擴大와 國內制度의 國際規範化는 通商摩擦의 緩和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國

際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한 産業構造調整의 촉진, 消費者 厚生의 增大, 獨寡占의 견제와 그 폐해완화 등을 통하여 원활한 經濟成長을 지속시킨다는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市場開放豫示制」를 통해 업계와 국민이 사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세워진 開放計劃은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業界의 적극적인 적응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 貿易政策의 대외공신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우리의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를 國際規範에 일치시키는 작업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우리산업의 競爭力提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절차, 인허가제도를 과감히 완화 또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음.
- 정부는 市場開放 확대와 制度 및 規制의 개편으로부터 오는 短期的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産業構造調整을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 商品交易 뿐만아니라 外國人投資, 서비스교역(특히 금융서비스) 등이 폭넓게 자유화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多國籍 企業등의 獨寡占 行爲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임.

2. 韓·美 經濟協力

(1) 現況

— 韓美間 經濟關係는 1989년 수퍼301條에 의한 優先協商對象國(PFC)指定과 관련된 協商의 妥結 이후 韓國側이 취해온 대폭적인 貿易 및 直接投資의 自由化措置 등에 따라 양국간 通商摩擦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우리의 對美貿易 收支도 1980년대후반의 大規模 黑字에서 1990년이후 赤字 혹은 균형에 가까

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貿易懸案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1989년 이후 우리의 對美輸出이 계속 減少하고 있으며, 특히 美國이 1992년 들어서는 半導體, 鐵鋼 등 우리의 主宗輸出商品에 대하여 反덤핑·相計關稅 등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의 對美輸出與件이 어려워지고 있음.

-한편 1992년 1월 韓美 頂上會談에서의 합의에 따라, 通關節次, 표준 및 政府規制, 外國人投資, 技術部門 등에 관한 韓美間 營業環境改善方案協議(PEI)를 진행하여 9월중 最終報告書에 합의하고, 最終報告書 채택후 6개월내에 建議內容의 施行與否를 점검하고 그 후에도 定期的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함. PEI 最終報告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通關時間의 短縮과 書類作業의 簡素化
- 標準과 政府規制에 있어서의 透明性 保障과 均等한 待遇
- 양국간 技術貿易促進을 위한 양국정부간 協調와 民間次元의 技術協力 및 技術移轉을 촉진하기 위한 技術分科 설립
- 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制度和 관련하여, 外資導入 심사 및 外國人土地取得規制 등의 緩和

-美國의 對韓 通商壓力의 중심은 實物分野에서 金融分野로 옮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은 銀行, 證券 등 광범위한 金融市場 開放과 관련 國內金融制度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金融摩擦의 해결방식으로서 美國은 종전과 같은 部門別 開放요구보다는 包括的인 金融自由화와 金融市場全般에 대한 한국정부의 規制緩和쪽으로 전환하고 있음.

(2) 클린톤의 經濟政策과 影響

-1992년 11월초 選舉에서 大統領으로 當選되어 1993년 1월 취임할 클린톤候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經濟活性化에 두고, 특히 公共投資增大를 통한 景氣浮揚策을 제시하고 있어, 아직도 본격적인 回復勢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美國經濟의 내년도 전망에 밝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美國經濟의 회복은 여타선진국의 景氣動向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對美輸出依存도가 높은 韓國經濟에 큰 의미를 가짐. 다만 막대한 聯邦財政赤字의 持續과 그에 따른 金利上昇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公共投資增大를 통한 景氣浮揚策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기간동안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점을 이유로 내년에도 美國經濟의 回復力은 미약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클린톤은 기본적으로 自由貿易主義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내 失業問題와 국내 經濟沈滯를 해결하기 위한 打開策의 하나로서 輸出增大의 重要性을 강조하며, 交易相對國의 공정한 무역관행과 市場接近 改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不公正한 貿易慣行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通商政策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交易相對國의 不公正貿易慣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서 民主黨 政府는 1988년 綜合貿易法에서 도입되어 2년간 적용되다가 1990년에 효력이 소멸된 「수퍼 301」條를 부활시켜 이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그럴 경우 美國은 EC와 日本 등 主要 交易相對國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클린톤의 主要 經濟政策 참모들은 미국에 대하여 막대한 貿易黑字를 내고 있는 日本과 中國을 비난해 왔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管理貿易

(managed trade)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中國에 대해서는 人權問題 등을 이유로 最惠國(MFN)待遇를 撤回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음.

- 造船業과 宇宙航空産業에 있어서의 補助金支給問題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으므로 향후 日本과 韓國의 조선업, 그리고 EC의 우주항공산업이 通商 壓力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클린턴은 막대한 公共投資擴大를 위한 재원마련의 한 방법으로서 외국 기업에 대한 稅務查察強化와 稅金重課 및 移轉價格規制 강화를 계획하고 있어, 美國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3) 展望과 우리의 對應

-그동안 對美輸出 不振 속에서도, 中國, 中東, 中南美市場에 대한 輸出이 비교적 好調를 보여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增加勢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최고의 製品들이 競爭하는 世界 最大市場인 美國市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우리상품의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해서는 美國市場에서의 占有率 유지에 노력해야 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政府는 企業의 대미진출을 적극 支援 誘導하고 對美通商關係 改善에 노력하고, 企業들도 開途國·北方國家에의 進出強化와 함께 美國市場의 管理에 더욱 노력해야 함.

-또한 클린턴 行政府의 등장과 내년도 미국경제의 回復전망을 감안할 때, 이를 적극 活用할 수 있는 우리의 效果的인 對應이 요구되고 있음. 즉 美國經濟 活性化에 따라 미국의 輸入需要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政府와 企業 및 勤勞者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지난 3-4년간 減少勢를 보인 우리의 對美輸出을 다시 增加시키는데 擘心努力해야 할 것임.

- 1970-80년대중 美國經濟의 回復 初期 2年을 볼 때, 輸入物量伸張率이 實質 GDP 成長率의 3.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MF의 전망에 따르면 91년 0.6%였던 美國의 輸入物量 伸張率은 1993년 6.4%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美國이 日本과 中國에 보다 강력한 通商壓力을 가하여 일본과 중국상품의 대미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우리상품의 對美輸出 增加를 위한 好機가 될 수 있음.

클린톤 행정부는 美國의 輸出增大를 위하여 交易相對國의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美側의 주요 관심분야인 金融市場 開放과 知的所有權 보호문제, 쌀市場 開放問題 등에서 對韓通商壓力이 加重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韓美間 金融關係는 전반적인 金融自由化日程의 단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현재 마련중인 제3단계 開放計劃의 실시시기나 내용을 國民經濟全般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綜合的이고 說得力있게 계획을 작성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金融自由化와 實物部門의 連繫, 금융자유화와 관련된 金利, 外換, 資本部門을 연계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巨視經濟的 攪亂要因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우리의 계획이 미국측에 신뢰성있게 이해될 수 있도록 體系的이고 一貫性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클린톤 行政府는 國防豫算의 대규모 削減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駐韓美軍 駐屯費用의 한국측 負擔增加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금년중 韓美間 PEI의 원만한 타결은 兩國間 通商關係의 增進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의 韓·美通商關係는 PEI 등에서 이루어진 合意事項의 실천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일단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履行함으로써, 通商摩擦의 소지를 減少시키며 국제사회에서의 信賴性을 높이고 不確實性을 낮추어야 함.

—또한 韓美 經濟協議會內에 만들어진 기술분과를 적극 활용하여 韓美間 技術協力과 技術移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개최될 예정인 技術市場(테크노마트)을 적극 活用하여 技術情報의 획득에 努力해야 함.

3. NAFTA에의 對應

(1) 現況과 展望

—지난 8월 12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에 妥結된 北美自由貿易協定 (NAFTA)은 EC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의 形成이라는 점과 우리와 대미수출시장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는 멕시코가 당사국이라는 사실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關稅障壁의 撤廢, 投資機會의 擴大, 知的 所有權의 保護와 原產地 規程의 強化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NAFTA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包括的 自由貿易協定(FTA)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FTA와 구별되며, 단일 통화체제의 실현과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는 EC와는 달리 역내국 간의 교역증진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무역확대와 역외국에 대한 경쟁력 배양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하고 있음.

—1992년 12월 17일 정식 조인된 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관련 3국의 議會比準

節次를 거쳐야야 하며, 그 시기는 3국의 국내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대국민 설득력 및 의회의 입장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임. 미국의 경우 迅速處理節次 (fast-track)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1993년 5월말까지 최종 협정안을 국회에 送付하여야 함.

- 미국은 UR의 성사를 도모함으로써 다자간 협상체제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EC를 비롯한 타지역 블록의 출현에 따른 상대적 지위약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NAFT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FTA 확대는 UR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리라 기대됨.
- 이와같은 미국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클린턴은 NAFTA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 환경문제의 강화와 수입상품의 범람을 방지하는 보호주의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보완을 위한 추가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NAFTA의 조속한 출범을 기대하는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였으며, 미국시장에서의 기득권 유지와 무역확대를 목표로 참여한 캐나다도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UR의 최종 타결 시기 및 재협상 여부에 관계없이 NAFTA는 1994년 1월부터 공식 출범한 전망이 높으며 이미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차기 FTA 후보국으로 거론되고 있음.

(2) 經濟的 波及效果

一 域內國간의 關稅障壁 撤廢와 原產地規程의 강화로 우리와 산업구조상 유사점이 많은 멕시코와 자동차, 전자, 섬유, 의류 등의 品目에서 대미수출 競爭이 높아질 것임.

- 멕시코는 1985년부터 단행된 경제개혁 및 개방화의 결과 이미 상당부분

의 관세, 비관세 장벽이 철폐된 상태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미 무역의존도가 70%선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경우 NAFTA의 출범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북미시장 전체의 景氣回復과 內需擴大로 인한 貿易創出 효과도 기대되며, NAFTA는 향후 10-15년간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전체적 파급효과는 우리의 정책대응과 대외경쟁력 향상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것임.

(3) 우리의 對應

- EC협상의 進展과 NAFTA의 出帆으로 우리가 直面해야 하는 새로운 세계경제 秩序下에서, 우리에게 미칠 否定的 影響을 最少化하며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對應方案이 講究, 摸索 되어야 함.

- 지역주의 趨勢에 대한 대응으로서 통상외교를 강화하며 互惠平等의 GATT 체제에 基盤을 둔 多者間協商(예: UR協商)에 적극 참여하여 역외국이 당하는 불이익을 共同으로 對處함.
- APEC 및 ASEAN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내의 위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通商政策의 未備點과 閉鎖性을 補完, 改善하여 NAFTA 관계국 및 세계주요 시장에 능동적으로 접근함.
- 향후 멕시코에 대한 直接投資의 擴大는 대미수출의 迂迴基地 및 中長期的으로 中南美 진출을 위한 橋頭堡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원산지 규정의 강화, 환경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선진국의 현지투자 확대에 대한 경쟁력의 격화 등 諸般要件의 충분한 事前檢討가 요구됨.
- 短期的으로는 NAFTA의 출범에 따르는 멕시코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므로 아국의 통신, 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되며 원산지 규정의 불이익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마끼라도라'(保稅加工地帶)의

- 참여 확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高附加價値 상품을 계속 개발, 생산하여 우리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임.

4. 韓 · 日 經濟協力

(1) 現況과 展望

— 만성적인 對日 貿易收支赤字는 1993년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1991년에는 87억 6,000만달러까지 擴大되었던 對日 貿易收支赤字는 금년 1-9월기간동안 去年同期에 비해 7.1%가 減少한 61억 3,000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으나 그 원인은 동기간의 對日 輸出·入이 모두 減少(수출; -4.6%, 수입; -5.7%)하는 가운데 輸入의 減少幅이 더 컸기 때문임.

- 내년에도 1991년 후반이후 계속되고 있는 日本의 景氣沈滯가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對日 貿易收支가 改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慢性的인 對日 貿易收支 赤字의 主要原因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産業構造가 지나치게 對日依存的이라는데 있음. 즉 우리나라는 先進國으로부터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機械設備 및 핵심적인 部品, 中間財 등을 輸入하여 完製品을 조립생산, 이의 대부분을 輸出하는 방식을 취해 왔음. 그런데 이들 輸入機械設備 및 部品, 中間財의 대부분이 日本에서 輸入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日輸出이 不振하다는데 있음. 즉 1980년대말 이후 國內賃金의 급격한 上昇, 근로자세의 이완 등으로 인해 韓國商品의 가격·비가격

競爭力이 크게 약화되어 일본시장에서 중국, 아세안제국 등의 後發開途國 製品에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고 있음.

- 日本市場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우리가 競爭力을 갖고 있는 商品에 대해서는 自國産業의 保護를 위해 높은 關稅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外國商品의 일본진출을 막는 非關稅 障壁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日本의 對韓 投資 및 對日 技術導入도 減少하고 있음.

- 日本은 韓國에 대한 最大의 投資國으로서 1991年末까지의 總 投資規模는 2,179件에 投資金額은 40億 2,000萬 달러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日本의 對韓投資는 1990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今年에도 1-9월까지 58건에 금액으로는 1억 3,200만달러에 그쳐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件數에서 40.2%, 投資金額에서는 30.2%가 감소한 상태로 이러한 경향은 1993년에도 크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음.
- 技術導入面에서도 對日 技術導入은 최근까지 우리나라 海外技術導入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왔으나 1990년 이후 日本企業의 韓國에 대한 投資가 減少하면서 이와 附隨된 技術供與가 크게 減少하는 경향에 있고 앞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日本으로부터의 投資 및 技術導入이 급격하게 減少하고 있는 原因은 다음과 같음.

- 직접적으로는 1980년대말부터 國內賃金이 급격하게 上昇하고, 勞使紛糾가 빈발하였으며, 일본에 差別的인 制度 및 日本의 植民地支配 등의 과거사와 관련한 양국간 國民感情의 惡化 등이 投資地域으로서 한국의 魅力을 크게 減少시켰기 때문으로 보임.
- 이와함께 역사적 이유에 기초한 일본의 對韓 輿論의 惡化 및 일본의 경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일본에

대해 비교적 友好的인 아세안지역에 투자와 기술이전을 확대하여 이 지역을 日本의 본격적 하청기지로 編入시키려고 하는 日本의 國際的 分業戰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日本의 아세안 諸國 및 중국에 대한 投資急增으로 韓國의 競爭力 弱화가 우려됨.

- 日本企業의 低賃金 利用을 주 目的으로 한 아세안 諸國 및 중국 등에 대한 直接投資가 1980年代 중반 이후 急增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아세안 지역의 경우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베트남의 開放化가 進展됨에 따라 이 地域에 대한 投資進出도 크게 增加할 것이 豫想됨.
- 이들 지역에서 日本의 現地進出企業이 生産하고 있는 製品은 우리나라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纖維, 雜貨, 機械·電子 등의 中級品에 置重되어 있기 때문에 日本市場은 물론 제 3국 市場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競爭力 弱화가 심각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음.

日·北韓간에는 修交를 위한 交渉이 進行되고 있으나 爭點사항인 日本의 賠償範圍와 그 규모, 北韓의 核開發 의혹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핵개발 문제를 중심으로한 美國의 대북한 불신, 南北韓간 관계개선의 지연 등으로 조만간 日·北韓간의 修交가 성사될 지는 극히 不透明한 상태임.

- 北韓은 日本에 대해 해방후 45년간에 대해서도 補償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日本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 北韓의 핵개발 문제는 日本의 安保와 직결된 문제이나 이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음.
- 日·北韓간의 관계개선은 韓國, 美國의 利害와도 직결된 문제이나 핵개발 의혹 등의 문제로 北韓과 韓國, 美國과의 實質的 關係改善이 진전되지 않

고 있음.

(2) 우리의 對應

—對日貿易收支赤字의 縮小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組立·加工 中心의 産業構造를 止揚하고 原資材, 中間材産業을 育成, 國産化함으로써 이들 品目の 對日 輸入需要를 國産品으로 轉換시키는 것이 시급한 課題임.
- 이를 위해서는 수출전략도 完成品 수출보다는 部品輸出을 지향하는 쪽으로 再考되어야 할 것임.
- 賃金上昇의 抑制, 金利引下, 勤勞姿勢의 재정립, 國內企業의 競爭環境造成 등을 통한 國內經濟環境의 改善이 필요함.
- 日本의 市場構造와 日本 消費者들의 嗜好를 정확히 把握하고 이에 맞는 商品을 開發하여 日本市場을 적극 開拓하려는 努力이 경주되어야 함.
- 競爭劣位産業의 開途國 移轉을 촉진하여 이를 통한 對日 迂迴輸出戰略의 수립이 필요함.

—日本의 對韓 技術移轉이 活性化되기 위해서는 日本企業의 對韓 直接投資를 적극적으로 誘致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를 위해서는 國內 거시경제환경 및 外國人投資環境의 改善, 감정적인 對日 輿論의 鎮靜 등 우리나라의 投資環境이 시급히 改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중소기업분야에서 우리나라 企業이 必要로하는 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해당 日本企業에 관한 情報의 提供 및 이를 相互 連結시켜주는 시스템을 構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韓·日間의 小地域經濟圈 形成의 促進을 통한 對韓 技術移轉도 적극적으로

로 檢討되어야 할 것임. 한 例로서 日本 南西部의 큐우슈지역은 東京을 중심으로 한 日本의 中央地域보다도 地理的으로 韓國의 南部와 더 近接해 있고 최근 半導體, 自動車, 鐵鋼 등 多様な 産業이 立地하면서 日本의 새로운 工業地域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地域企業과 우리나라 企業과의 交流擴大를 통한 技術移轉의 可能性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戰略的 次元에서 兩地域間的 出入國, 交通問題 등을 포함한 交流의 活性化 政策이 積極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임.

對日 貿易收支赤字 및 技術移轉의 問題는 아시아제국 모두의 당면과제이자 美國 및 EC의 貿易收支 赤字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 이 문제를 이들 국가와 상호 連繫하에 多者間 문제화하여 對日壓力을 가하는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아시아국가들은 日本으로부터 資本財, 中間財를 輸入하여 完製品을 생산 이를 주로 美國 및 EC로 輸出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데는 日本이 自國市場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음. 따라서 아시아제국의 對美, 對EC 수출을 對日輸出로 代替시키는 構造를 시급히 構築하도록 관계국과 외교적 연대하에 對日 壓력을 가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保護主義 傾向을 沮止하는 근본적인 조치이기도 함.

○또한 아시아제국의 對日輸出을 擴大시키기 위해서는 日本이 技術移轉을 積極화하여 아시아 제국의 技術水準 및 製品品質을 높이는 노력도 경주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技術移轉이 민간기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日本政府의 적극 개입하에 公的次元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外交的 努力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日·北韓 修交問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對應이 필요할 것임.

- 日·北韓간 교섭을 注視하되 日本 및 北韓外交의 이중성을 警戒하면서 양국관계의 진전이 南北韓 관계의 진전에 支障을 초래하지 않도록 美國 및 中國,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外交的인 대처가 필요함.
- 가능하면 日·北韓 修交前에 南北韓 관계가 더욱 進展되어 北韓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利用당하지 않고 韓國과 有機的 關係하에서 對日交渉力을 높일수 있도록 北韓을 說得하는 노력이 필요함.

5. EC 經濟統合에의 對應

(1) 現況과 展望

- EC는 1986년 7월 單一유럽議定書(SEA: Single European Act)를 발동시킴으로써, 회원국간의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있는 282개의 貿易障壁들을 크게 物理的·技術的·稅制的 障壁으로 구분하고, 이를 1992년 말까지 완전폐지한다는 市場統合計劃을 당초 예상보다 순조롭게 추진시켜 왔음.
- SEA의 발동에 따라 EC執行委員會는 1990년 7월까지 총 282개의 域內貿易障壁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提案을 閣僚理事會에 제출 완료했으며, 1992년 10월말 현재까지 EC閣僚理事會는 이중 253개 案을 最終法案으로 채택했고 8개 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단계에 있음. 결국 1992년도 EC 市場統合計劃은 92%정도 완성되었다 할 수 있으며, EC執行委員會는 오는 12월 말까지 적어도 95%이상이 閣僚理事會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함.
-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EC閣僚理事會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253개 案의 市場統合計劃중에서 42개의 規定(Regulation)과 174개의 指針(Directive)을 포함 216개 案이 1개 회원국 이상에 실제 적용(216개 案중에서 68개 案은

全會員國에 적용)되고 있으며, 會員國法을 개정해야 하는 174개 指針의 약 78%(174개 지침×12개 회원국=2,088개 중의 78%)가 회원국들에 적용되고 있음.

- 1992년도 EC 市場統合計劃의 추진과정상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는 稅制問題, 知的所有權 및 會社法과 관련된 문제들을 들 수 있으며, 금년말까지 法案의 채택이나 적용이 불가능한 계획들은 1992년 이후로 미루어질 것임. 예를 들어, EC는 稅制單一化 計劃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대가 강력해지자, 1996년 말까지 法案採擇을 미루고 있음.

올년말까지 全會員國들의 만장일치의 批准을 거쳐 추진되도록 되어 있던 通貨同盟과 政治統合計劃을 포함하고 있는 EC의 마스트리히(Maastricht)條約은 지난 6월 부결된 바 있는 덴마크의 국민투표를 내년 4~5월경에 다시 實施批准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지난 9월 독일의 高金利政策에 따른 영국과 이태리의 유럽通貨制度(EMS)內的 換率調整體制(ERM)이탈과 프랑스국민투표로 증폭된 EC統合에 대한 불신감, 특히 최근 미국과의 農產物協商을 일방적으로 타결시킨 EC執行委員會와 이를 주도한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 등의 EC회원국들간의 반목이 증폭됨으로써, 마스트리히條約 批准과 관련된 진통은 계속될 것임.

- 反-마스트리히條約에 대한 열기는 늦어도 1998년 말까지의 單一유럽通貨 발행과 유럽中央銀行 設立을 골자로 하는 通貨同盟(EMU)에 따른 經濟的 失益이 분명하지 않으며, 政治統合으로 회원국들의 주도권이 超國家的인 EC共同體로 대폭 이양될 경우에 나타나게 될 여러가지 위험성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임.
- 영국의 ERM복귀는 1~2년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러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EC회원국들은 마스트리히條約이 요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財政, 換率, 金利 등과 관련된 4가지 EMU가입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
이므로, EC 通貨同盟計劃은 2단계나 또는 그 이상의 다단계 형태로 추진
될 가능성이 큼.

- EC국민들은 共同農業政策 등의 기존 EC共同政策에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마스트리히트條約에 따라 대폭 증가해야만 될 EC共同體豫算을 강력
히 반대할 것으로 보임.

- 결국 마스트리히트條約이 1993년 안에 批准된다는 것 자체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批准에 성공한다해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것임.
특히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EC政治統合計劃은 여러가지 經濟外的인 문제
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通貨同盟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추
진과정을 보이게 될 것임.

-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들은 EC가 完全統合으로 가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종의 진통과정이며, 1992년도 市場統合計劃의 성공
으로 실물부문에 있어 完全統合을 이룬 EC는 이미 되돌아 갈 수 없는 단
계에 와 있음. 결국 마스트리히트條約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통합계획들은
시간계획이나 내용에 있어 어느 정도 변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무산될 수
는 없을 것임.

(2) 우리의 對應

- 이와같은 EC의 統合發展이 우리나라와 같은 域外國家들에 미칠 영향은 市
場擴大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유럽要塞化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즉 EC
統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부족하다면 세계 제일의 市場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統合의 심화와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相

互主義와 差別主義로 심각한 通商摩擦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EC統合發展은 세계경제의 불럭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國際社會에서의 EC영향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분명한 것은 EC統合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된다면, 域外國家들은 통합추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비해서 오히려 크나 큰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서, 회원국들간의 불화로 EC가 마스트리히條約 批准에 실패하여 統合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간다면, 유럽에 있어서의 民族主義 대두, 保護主義 재연, 金融市場의 불안 등으로 全世界는 일련의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임.

- 결국 우리나라는 EC統合이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이상, 統合에 대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됨. 다만 EC統合이 世界經濟의 불럭화확산이나 域外貿易障壁을 동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EC를 GATT등 多者間協商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雙務的 차원에서의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첫째, EC와의 원만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通商摩擦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C및 EC 주요회원국들과의 民·官 공동차원의 雙務接觸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의 일본과 다르다는 인식을 해소시키고, 우리나라의 미국중심의 通商問題 해결방식에서 기인한 對EC 차별인식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둘째, 쌍무접촉의 일환으로 科學技術協力擴大 및 標準化設定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우선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기계, 정밀화학, 신소재 등 EC의 比較優位分野로 技術協力を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EC의 共同標準化 설정과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參與擴大 및 技術基準의 상호인정을 위한 協力を 확대해야 할 것임.

—세째, 地域統合에 대한 효과적 對應方案으로 EC地域內 현지투자를 신중히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EC지역에의 투자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제조업부문의 투자와 함께 企業進出支援을 위한 流通部門投資와 금융기관의 對EC 進出을 함께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6. 亞·太 經濟協力

(1) 現況과 展望

—北美, 日本, ANIEs(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ASEAN,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괄하는 亞太經濟圈이 세계 총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1%에서 90년 50%로 급증함. 또한 무역규모도 급성장하여 세계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同 기간 중 29%에서 38%로 증가함.

○亞·太經濟圈의 역내무역비중은 1990년에 65%를 기록하여, EC에 버금가는 높은 相互依存度를 보여주고 있음.

한편 對外開放性 및 相互依存性의 深化에 기초한 아태경제의 역동성에는 지역주의의 동향 이외에도 역내 무역불균형 및 개도국간 경쟁격화 등의 구조적 장애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美國의 클린턴 정부의 출범은 동 지역에서의 경제마찰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현재 亞·太經濟圈에서 추진중인 대표적인 지역협력체로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亞·太經濟協力關係會議 (APEC Ministerial Meeting)를 들 수 있으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構想이 있음.

- ASEAN은 1992년 1월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기로 합의하였으며, 1993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 EAEC 구상은 美國의 반대 및 日本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국가들의 유동적 태도로 성사여부가 극히 불투명함.

1989년 11월, 濠洲 캔베라에서 개최된 APEC은 아시아와 북미를 포괄하는 유일한 광역경제협력체로서 PECC나 PBEC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던 협력논의를 정부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를 마련함.

- 회원국으로는 본래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ASEAN 6개국, 호주, 뉴질랜드 12개국에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 홍콩, 대만이 추가됨
- 무역확대, 투자 및 기술이전, 에너지 등 10개 협력과제를 선정 추진 중
- 1992년 9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 4차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20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APEC은 역내 貿易, 投資 및 技術移轉의 지속적 확대를 통하여 會員國들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역내무역

자유화의 추진을 통하여 GATT를 중심으로 하는 多者間 自由貿易體制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APEC은 회원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UR의 성공적 타결이 급선무라는 점과 이를 위하여 공동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 천명하여 왔음.
- APEC은 현행 UR 협상과 별도로 1991년 7월이후 수차례의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 방안을 모색하여 왔음.

-1993년 APEC 각료회의의 議長國을 맡은 美國은 역내무역자유화 및 협력사업의 효율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亞·太 經濟協力の 새로운 轉機가 마련될 지의 여부가 주시되고 있음.

- UR의 성공적 타결은 북미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둘러싼 역내 소지역주의간 갈등을 견제하고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에서의 非排他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 증진의 원동력이 될 것임.
- APEC 주도하의 역내무역자유화는 GATT의 자유화추진을 지역차원에서 확대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협력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궁극적으로 APEC의 성패는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협력구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지도력의 확립 및 정책협조 내지 조정의 도출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2) 우리의 對應

-APEC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는 다자간 협력체제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견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유무역체제 확립에 기여하여야 함.

- 한국은 APEC이 아태경제협력의 구심점으로 역내 무역불균형의 해소, 산

업구조조정, 무역자유화 및 직접투자의 활성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협조 내지 정책조정기능을 갖추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APEC이 추진중인 협력사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APEC주도의 역내 투자자유화규약 및 TPRM 설립을 적극 추진
- 소지역주의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亞·太地域 및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位相에 걸맞는 협상력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다자주의 및 개방주의에 대하여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는 국가들과의 공동보조를 추진하여야 함.

- 현재 NAFTA 및 AFTA 양쪽에 속하지 않는 日本, 3개의 中國,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안을 적극 검토
- DAEs(Dynamic Asian Econom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간 협력강화에 주도적 역할 담당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시장확보 및 경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하여 다자간 협력과 별도로 주요개도국과의 쌍무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ASEAN을 전략적 협력대상으로 선정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 협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막대한 시장잠재력 및 자원공급선으로서의 위상, 해외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의 독점적 영향력증대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
- ASEAN과의 협력강화는 해외투자의 활성화 및 기술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경제교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7. 北方經濟協力

(1) 現況과 展望

—舊社會主義圈의 改革·開放政策과 우리의 北方政策이 맞물려 과거 단절되었던 대부분의 북방국가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무역·투자보장협정 등 정부간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이들 國家와의 經濟協力の 基盤이 조성되었음.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北方國家와의 經濟交流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北方國家가 우리의 주요 경제파트너로 등장하고 있음.

○ 1987년에 21억 달러(총교역액의 2.5%)에 불과했던 북방국가들과의 交易規模는 금년에 110억 달러(총교역액의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5년간 5배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보임.

○ 북방국가들에 대한 直接投資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한국은행 허가 기준으로 금년 9월말 현재 총 394건에 4억4천만 달러에 달함.

○ 단 교역·투자 모두 75% 정도가 중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1993년중 北方國家들의 經濟改革은 지속되고 전반적으로 경제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보임.

○ 中國은 내년에도 금년에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10% 정도의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중 GATT 가입이 예상되는 등 개방화 추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舊蘇聯은 금년과 같이 經濟가 20% 이상 하락하는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날 것이나 경제침체는 계속되어 내년에도 경제가 5~10% 감소할 것으로

로 보이며 1994년에 가거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東歐의 경우, 폴란드, 헝가리, 체코 三國은 내년부터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경제침체가 1~2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改革·開放政策은 가속화되고 西方企業의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베트남經濟는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내년에도 北方國家와의 經濟交流는 크게 신장되고 또 내용면에서도 多樣化할 것으로 전망됨.

- 中國, 베트남과의 교역이 금년에 나타난 급증추세를 유지하고, 舊蘇聯과 東歐와의 교역도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對北方交易의 급속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북방국가들의 經濟改革이 진전되어 投資環境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의 對北方 直接投資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科學·技術 및 資源開發 分野에서의 協力도 활성화되어 北方國家들과의 經濟協力이 보다 多樣化될 것임.

(2) 우리의 對應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政治·外交的 成果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北方國家들과의 經濟的 互惠性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北方國家마다 經濟潛在力 및 改革의 推進速度에 차이가 있고 政治·社會的 與件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國家別 特性을 감안하여 적합한 經濟協力 방식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舊蘇聯과는 장기적 안목에서 자원, 과학기

술분야에서의 협력과 잠재력있는 시장을 목표로 經協據點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 경제가 호황을 누리며 성장과 개방이 심화되고 있는 中國에 대해서는 증대되는 輸入需要를 포착하는 輸出增大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내수시장진출, 풍부한 저임 노동력 활용 및 자원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베트남과는 開發經驗의 전수와 자원개발 및 저임노동력 활용의 차원에서 政府와 企業의 연계하에 적절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동구와는 그들의 경제개혁과 안정화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범유럽권 진출의 일부로서 경제교류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中國과 舊蘇聯에 대해서는 地域別 特性을 감안한 세분화된 경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국의 경우 省別 進出方案을 세워야 할 것이고, 舊蘇聯의 各國別 經協戰略과 러시아의 地域別 經協對策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의 차원에서 經濟 및 技術分野의 전문가 파견과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北方國家와의 경제관계는 전반적으로 相互補完의 측면이 강하나, 中國의 경우 수출경쟁력의 급격한 향상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우리 제품과의 경쟁관계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는 中國市場 진출은 가속화하는 한편, 産業構造의 고도화와 商品의 品質改善 등을 통한 競爭力 提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우리 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延拂輸出資金, 海外投資資金, 對外經濟協力基金 등 가용재원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對北方經濟交流가 증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 기업간 過當競爭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업계의 사전조정을 통한 기업의 地域別, 分野別 特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진출기업 협의체(KOCHAM)를 구성하여 해당국 정부에 대한 협상력 제고와 과당경쟁의 자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北方國家들은 대부분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經濟與件과 政治狀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아직까지 구체제의 관습이 상당부분 그대로 상존함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의 經濟協力環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政治·經濟動向 및 關聯制度에 대한 研究가 심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中小企業의 對北方 經濟協力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북방 지역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8. 東北亞 經濟協力

(1) 現況과 展望

- 東北亞國家(日本, 中國, 극동러시아, 몽골, 南·北韓)間에는 賦存資源, 産業構造面에서 相互補完性이 크고 貿易·投資面에서도 相互依存도가 높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큼.

- 현재 UNDP의 주관하에 논의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은 政治·經濟體制가 상이한 아시아 국가간에 多者間 經濟協力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일종의 試金石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東北亞經濟協力の 概念과 範圍에 대한 각국의 基本認識이 상이하고 政治·制度的 障礙가 커, 어떠한 구체적인 「協力協議體」없이 학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음.
- 東北亞국가들간의 協力は 二國間的 雙務協力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多國間的 協력으로 추진하기에는 국가간의 認識差異가 너무 큼.
- 潛在力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일본은 처음에는 말레이시아수상의 EAEC구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가, 미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APEC와 같은 汎世界的인 차원의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는 등, 東北亞經濟協력과 같은 小地域協力(subregional cooperation)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중국과 북한은 東北亞經濟協력을 琿春 및 두만강 등 地域開發事業에 대한 西方企業과의 협력이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 NAFTA, EC등과 같은 지역블록의 등장으로 1993년에는 東北亞국가간에 地域經濟協力圈 창설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政治·經濟體制的 異質性과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간의 커다란 認識隔差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東北亞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日本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나 美 클린턴행정부와의 관계, 동북아국가들과의 歴史的인 관계등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는 公式的인 參加나 주도적인 역할담당을 꺼려하고 있음.

○ 다만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일본의 西北部지방을 중심으로 南北韓, 中國, 러시아 極東지방과의 經濟協力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기대되며, 1993년 중에는 각종 정책세미나와 交流計劃등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러시아, 북한, 몽골 등 3개국의 경우, 미비된 인프라와 政治的 불확실성등과 관련된 政治的·制度的 隘路要因이 크므로 外交的 노력과 公的 援助를 통해 이를 段階的으로 제거·완화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1993년들어서는 各國간의 利害가 합치되고 認識隔差가 상대적으로 작은 交通, 通信, 環境등의 분야에 관한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東北亞國家間的 環境保護에 관한 협력은 1993년의 시급한 현안문제로 떠오를 것인데, 우리로서는 中國內 東北3省과 沿海地域의 급속한 工業化가 우리의 기후 및 生態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2) 우리의 對應

- 동북아경제협력은 經濟的인 측면에서 우리의 資源導入先과 輸出市場을 多邊化시켜 줄 것이므로, 多者間 경제협력의 場에서 우리의 中間者的 立場을 최대한 활용, 新市場개척과 新規投資 기회포착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국가간의 經濟交流는 북한의 漸進開放을 유도하고 韓半島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일본의 資本·技術供與國으로서의 우월한 지위와 입장을 감안, 한국과 함께 合作투자, 콘소시움을 형성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할 것임.

—그러나 協力에 대한 必要性인식과 協力潛在力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東北亞 經濟協力이 성공될 수는 없으며, 各國간에 相互認識隔差를 줄이고 實踐方案을 도출하는 정부·민간급의 協議와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美國과 러시아간의 軍事的인 對立이 끝난 공백을 이용해, 中國과 日本間에 아시아에 대한 主導權爭奪戰 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정부는 汎世界的인 시각에서 이를 우리 國益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한편, 東北亞經濟協力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日·中의 中間에서 거중조정을 할 수 있는 政治·經濟·外交的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 우리로서는 東北亞協力論議에 있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몇개의 戰略的인 目標을 설정하고, 이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우선 民族統合經濟基盤의 구축을 위해 南北韓 經濟交流과 東北亞經濟協力을 연계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中等水準의 經濟發展段階와 地政學的인 中間位置를 활용, 東北亞國家間的 投資·金融 및 技術協力에 있어서 적극적인 媒介役割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 日本-中國간의 交通, 통신, 무역에 있어 仲介地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특히 영종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東北亞國家間 航空運送요충지로서의 서울의 戰略的 地位가 상승할 것이므로, 通關節次의 개선, 相關 法制의 정비, 輸送面의 대비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北京-서울-東京, 上海-부산-하바로프스크, 평양-부산-나이카다등에 直航空노선이, 그리고 釜山-나훗가, 仁川-天津등에는 海運航路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黃海와 日本海峽을 가로지르는 海底 光케이블과 海底터널의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日·南北韓·中國간의 輸送·通信상의

의 장애를 제거해야 할 것임.
할 것임.

一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에 관하여는 제1차 妥當性調查報告書가 1993년 7월경 나올 예정이므로, 그 때까지는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특히 同 사업이 南北間의 협력사업이 아닌 多者間의 협력사업임을 감안, 中立的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른 나라의 의견과 입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임.
- 南浦-海州지역과 羅津-先鋒자유경제무역구간의 차이를 비교·검토해 우리기업이 이들 지역에 투자했을 경우에 돌아올 相對的 費用-便益, 北韓經濟에 미치는 영향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비해야 할 것임.

9. OECD와의 協力

(1) 意義와 現況

一우리와 OECD간의 協力增進은 우리의 經濟力 伸張에 상응하는 國際的 役割의 提高 및 나아가서 先進國과의 政策協議를 원활하게 하는 의의를 지님.

- 韓國經濟의 總量規模 확대 및 開放擴大 그리고 交易內容의 다양화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의 經濟的 相互依存關係가 긴밀해지고 이에 따른 政策協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OECD와의 協力は 個別會員國과의 의견교환 및 조정을 통한 우리와 先進國間의 各種 경제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및 대외경제문제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일 수 있는 方案임.
- 또한 先進型의 經濟運用方式 도입에 필요한 OECD 회원국의 축적된 經驗

및 情報를 活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특히 韓國經濟의 先進化 目標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90年代의 새로운 이슈가 되는 環境, 原子力問題 뿐 아니라 東歐協力, 産業構造調整, 對開途國 지원 등에 대한 情報 및 諮問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韓·OECD 관계발전은 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스케줄과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고 開發援助가 예상을 넘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運送, 銀行, 保險 등과 같은 서비스交易의 自由化 및 직접투자, 증권거래, 금융상의 대부 및 신용 등 資本移動과 관련된 自由化 義務 부과가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러나 國際化 및 先進化의 추진이라는 우리경제의 운용방향에 비추어 볼 때 韓·OECD 協力は 부분적·단기적으로 초래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득이 되는 측면이 보다 많으므로 향후 OECD에의 전면가입에 대비하여 각 분야별 韓·OECD 協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OECD와의 협력은 OECD 회원국과 아시아 6개국(韓國, 臺灣,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泰國)과의 워크숍의 서울 開催, 일부 위원회와 OECD 연계기관에의 옵저버 참여 및 정식가입 그리고 韓·OECD間의 韓國經濟세미나의 개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음.

○ 1989년에 시작된 OECD와 아시아 고도경제성장 6개국(韓國, 臺灣,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泰國)과의 워크숍을 3차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1993년에도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또한 1990년의 OECD 조선작업반에의 정회원 참여를 시작으로 1992년에는 개발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OECD 貿易委員會의 옵저버로 加入하였고 原子力機構에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였음. 그리고 현재 鐵

鋼委員會와 工業委員會의 옮겨버加入을 추진하고 있음.

(2) 우리의 對應

-7次 5개년계획기간 후반기 이후에 OECD 加入이 가능할 수 있도록 OECD 제반 법규에 대한 檢討作業 및 OECD 각종 委員會 및 事務局에의 참여확대가 요망됨.

- OECD 제반법규에 대한 철저한 分析作業을 통하여 OECD 加入에 따른 득실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各 委員會의 性格·機能에 따라 활동참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委員會 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韓·OECD間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OECD 가입 등과 관련된 제반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긴밀하게 情報 및 意見を 교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OECD 관련 사무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OECD에의 파견 및 연수 등을 통하여 OECD 전문가의 양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OECD 가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내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작업을 段階別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우선 UR과 연계한 開放政策 및 國內制度의 整備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金融 및 資本市場 自由化計劃의 착실한 추진과 후속 개방 및 보완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고, 貿易 및 産業關聯制度를 國際基準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것임.
- 또한 對開途國 公的開發援助(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가입에 따르는 分擔金 등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OECD에 대한 國內弘報를 강화하고 認識提高 노력을 지속적으로

로 추구하고, OECD에 대한 國內의 일부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對OECD 관계강화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임.

- 이를 위해 對OECD 연구 및 조사의 주관기관을 一元化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과 OECD간의 전산정보망을 구축한 것은 좋은 사례이며 이를 통해 OECD관련 情報蓄積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임.

10. 國際環境問題

(1) 現況과 展望

—1992년의 리우 環境會議를 계기로 환경문제는 가장 중요한 國際經濟問題의 하나로 정립되었음. 리우환경회의에서는 「리우 宣言」, 「21世紀實踐綱領」, 그리고 「山林原則聲明」이 채택되고 「氣候變化防止基本協約」과 「生物多樣性協約」의 두 국제협약이 제정되었음.

- 「리우 宣言」은 '持續 가능한 開發'과 '環境費用의 內部化'를 이루기 위한 기본 지침을 규정한 것이며 「21세기 실천강령(Agenda 21)」은 그에 따른 부문별 세목별 정책지침임.
- 「氣候變化防止基本協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국별 배출현황 보고 의무 부과 수준으로 타결됨.
- 이외에 이미 채택된 주요 國際環境協約으로서 2001년부터 개정의정서에서는 1996년부터 CFC의 완전한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몬트리올議定書」(1992년 가입, 개정의정서에도 가입예정)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는 「바젤協約」(현재 가입 추진 중) 등이 있음.

○ 1993년도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氣候變化에 관한 政府間委員會 (IPCC)」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회경제적 평가작업이 진행되며, 기후변화협약에 후속하는 議定書(protocol)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환경협약과 별도로 GATT 체계 내에서도 환경과 무역 관련 논의가 있어 왔으며 향후 國際環境協約 內的 貿易條項과 GATT 조문과의 합치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될 것임.

○ GATT 내에서는 1971년 「環境과 貿易에 관한 작업반」이 설치된 바 있으며 멕시코의 미국 제소(미국의 돌고래 보호를 이유로 한 멕시코산 참치 수입금지 관련)에 따라 패널이 설치되었으나 본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환경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음.

○ 1993년 UR이 일단락될 경우 GATT 내에서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美國에 클린턴 新政府가 들어섬에 따라 美國의 環境政策에 變化가 豫想됨. 기본적으로 Clinton-Gore 행정부의 환경정책은 地球環境問題에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임. 미국의 경제 사정과 에너지 消費構造 등을 고려할 때,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모든 부문에서 환경기준의 강화는 예상됨.

○ 地球環境問題의 핵심의제들인 資金支援과 技術移轉 문제와 관련하여 클린턴 신행정부는 자금 측면에서는 일본과 유럽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부시 行政府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인 기술이전 분야에서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협상태도의 변화가 있을 징후가 보이지 않음.

○ 신행정부는 環境産業과 環境技術에 대한 산업정책 차원의 支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Clean Air Act」 등 이미 강화·개정된 美國 環境法規가 더욱 강화되어 자동차 배기물질 관련 기준 등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1993년에는 「Agenda 21」에 명시된 國際協力事項의 이행과 함께 기존의 국제환경협약의 개정 및 후속 의정서 제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국제 협상이 속개될 것임.

- 각 국제환경협상의 내용과 방향은 UR의 타결 이후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됨.

(2) 우리의 對應

-1993년 중 진행될 각종 국제환경 협상에 대비 環境外交를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가 우리 수출품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봉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환경관련 貿易規制 條項에 관한 논의는 多者間 協商테이블인 GATT內에서 논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쌍무적 통상압력에 비해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을 줄여 우리에게 유리할 것임.
- 1993년 중 氣候變化協約과 관련하여 속개될 科學的 評價作業을 담당하고 있는 IPCC의 활동에 積極的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 또한 氣候變化協約에 후속하는 議定書 제정작업에 대한 대비가 요청됨.
- Clinton 美行政府가 CO₂ 排出問題에 대한 기존 입장에 變化를 보일 경우 氣候變化協約에 대한 改定作業이 시작될 可能性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 필요.
- 이 경우 유럽과 日本이 주장하는 CO₂ 排出減縮 목표치 설정 및 각국별 排出量 할당, 국제적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協商 테이블의 구체적 현실적 의

제로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임.

長期的인 觀點에서는 環境基準과 監督의 強化, 각종 經濟적 手段의 도입 등으로 國際的 環境規制에 보조를 맞추고 環境산업의 積極적 育성과 수출산업화로 “환경보호를 통한 經濟성장”을 도모.

- CO₂ 排出減少를 위한 에너지효율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카니즘 도입
- 炭素稅 導入의 檢討
- 環境설비의 수출산업화 지원, 특히 개도국에 우리의 中級 에너지 節約技術과 裝備를 支援해 주고 CO₂ 排出削減 등 環境보전에 대한 크레딧을 얻는 방안의 추진
- 對開途國 經협자금과 環境산업 수출지원의 연계 방안 모색



V. 要 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3년의 世界經濟與件을 요약하면 우선 지난 2년간 심각한 景氣沈滯의 늪에 빠져있던 世界經濟가 1993년 중에는 美國을 중심으로 미약하나마 점차 成長回復勢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특히 내년 1월에 취임할 클린턴 大統領當選者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經濟回復에 두고 公共投資擴大를 통한 景氣浮揚을 모색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들어 이미 상당한 成長勢를 보이기 시작한 美國經濟의 1993년 展望을 밝게 해 주고 있음.

○그러나 日本과 西유럽 經濟의 回復展望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1993년 도 世界經濟는 1992년 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또한 世界 自由貿易秩序의 확충을 위한 UR협상은 당초 協商時限을 2년이나 넘기면서 膠着狀態에 빠져 있었으나, 1992년 11월 그동안 協商妥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農産物分野의 補助金 削減問題에서 미국과 EC가 合意를 도출함으로써, 1993년 2월말까지 UR協商的 전반적인 타결이 기대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國內産業保護를 위한 기존의 조치 등 각종 貿易障壁을 再檢討하여 이를 緩和해야 할 것이며, 國際水準을 넘는 장벽을 계속 유지하는 국가들은 미국 등 先進國으로부터 더욱 심한 市場開放壓力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이러한 UR協商的 마무리등 多者間 貿易秩序 構築 努力이 강화될 1993년중에도, 세계경제의 地域主義化 趨勢는 계속되면서, 인접한 지역내 國家間 協力強化 움직임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1992년 12월중 조인된 北美自由貿易協定은 1993년중 각국의 의회비준을 거쳐 1994년초부터 發效될 예정이며, 1992년까지 역내단일시장 형성을 마무리한 EC도 經濟通貨同盟과 政治統合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條約을 향한 準備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1993년도에 예상되는 國際經濟環境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주는 示唆點으로는 크게 UR 妥結에 따른 國內市場의 개방추세 확대, 地域主義 추세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主要 交易對象國과의 경제협력 강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제도, 정책 및 관행의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 증대, 그리고 環境, 技術 등 新分野와 관련된 多者間協定에의 적극 참여 및 대비책 강구 등을 열거할 수 있음.
- 1993년 중 타결되리라 예상되는 UR協商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시장의 개방속도를 가속화 시킴과 동시에 內外國企業間의 경쟁을 보다 심화시키리라 예상됨.
 - 반면에 UR協商의 타결은 우리의 主要 交易對象國의 시장개방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對外進出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것을 우리경제의 活性化 및 국내산업 構造調整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世界經濟의 무역질서는 UR協商을 통한 다자간 무역질서의 강화 추세와 EC 統合과 NAFTA의 결성 등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 경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多者間 協定에의 적극 참여는 물론 우리의 主要 交易對象國인 美國, EC, 日本 등과의 쌍무적 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됨.
 - 또한 APEC과 같은 기구가 開放的 地域經濟協力體制로 발전할 수 있도록 同機構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

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협력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국가 및 북방국가들과의 經濟協力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도 요구됨.

—UR妥結에 따른 GATT規範의 강화와 국내시장의 개방확대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비하고 국내기업의 競爭力提高 및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國內 貿易制度 및 관행과 기타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보완 및 개선작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요구되며 통상외교의 강화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通商外交擔當機構의 개편작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앞으로 우리나라의 貿易 및 投資 그리고 産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環境, 技術, 海洋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다자간 규범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향후 협정체결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준비작업의 추진이 요구됨.

—끝으로 1993년에 완만한 회복국면으로 접어드리라 예상되는 世界經濟를 우리경제의 貿易收支改善 및 구조조정 작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政策運營方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1993年度 國際經濟變化의 展望이 우리경제에 주는 示唆點과 國際社會에서의 우리 位相을 고려할 때 不公正去來나 정부의 支援 및 保護를 통한 교역신장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開途國으로서 누려왔던 國際規範으로부터의 例外惠澤은 더 이상 받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우리경제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

키고 國內制度를 國際規範에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와 같은 대내적 과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때문이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推進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대내적 과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에는 多者間體制를 통한 요구 뿐만 아니라 地域主義의 深化에 따른 영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임.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 | | | |
|-------|--|-----|
| 90-01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 金學洙 |
| 90-02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 閔充基 |
| 90-03 | 換率制度와 外換危險管理 ('90.05) | 金宗萬 |
| 90-04 |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 孫讚鉉 |
| 90-05 |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前略 ('90.06) | 金泰俊 |
| 90-06 |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 柳在元 |
| 90-07 |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 金學洙 |
| 90-08 | 美國通常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 金南斗 |
| 90-09 |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90.10) | 張義泰 |
| 90-10 |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 徐相祿 |
| 91-01 |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 姜興九 |
| 91-02 |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 金宗萬 |
| 91-03 |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 金廷洙 |
| 91-04 |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 李長榮 |
| 91-05 |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 吳勇錫 |
| 91-06 |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 朴濟勳 |
| 91-07 |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 金時中 |
| 91-08 |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 李相學 |
| 91-09 |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 曹琮和 |
| 91-10 | EC의 直接投資 環境 變化와 對應方案 ('91.05) | 閔充基 |
| 91-11 |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 金學洙 |
| 91-12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 蔡 旭 |
| 91-13 |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 俞鎮守 |
| 91-14 |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 裴眞永 |
| 91-15 |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 金泰俊 |
| 91-16 |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 洪裕洙 |
| 91-17 |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 金南斗 |
| 91-18 |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 柳在元 |
| 91-19 |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 金宗萬 |
| 91-20 |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 金迪教 |
| 92-01 |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 鄭永祿 |
| 92-02 |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現황과 改善方向 ('92.02) | 共同 |
| 92-03 |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 裴眞永 |
| 92-04 |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Ⅰ | 俞鎮守 |
| | 日本의 貿易障壁 ('92.03) | |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1]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2]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3]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2]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1-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8]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朴泰鎬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 ('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金昌男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 經濟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協商的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的 展開 ('90.10)	蘇侖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1.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 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C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政策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 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共 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金益洙

■ 세미나資料

· EC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 同
·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的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 -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Working Paper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90.8)
- S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政策資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 變化展望과 對應戰略

1992年 12月 25日 印刷

1992年 12月 30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 江南區 大峙3洞 942番地 해성빌딩 18-19층

電話 : 528-3333, FAX : 528-3311, 3322

登錄 : 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 本 報告書 內容의 無斷 轉載·譯載·複寫를 禁함

값 5,000원